

# 더민주 예산조정소위 광주·전남 의원 배제?

### 예산 확보 비상... 고위 당직 소외 이어 호남 진정성 논란 지자체장들 “공론화 나설 것”...우상호 “논의된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국고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을 배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추미애 대표의 고위 당직 인선에서 광주·전남이 소외되고 있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더민주의 호남 진정성 논란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6일 더민주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조정소위 구성과 관련, 호남 묶음으로 한 자리를 배정하기로 했으며 전북 지역구 의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제1야당의 예산조정소위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이 배제되는 조류의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더민주의 전신인 민주당 시절 예산조정소위는 광주·전남과 전북 등 호남에서 두 명이 배정되는 것이 관례였다. 광주와 전남은 매년 번갈아 가면서 한 명의 의원이 예산조정소위에 배정됐었다. 예산조정소위 위원에 자신의 지역구를 넘어 광주·전남지역 현안 사업을 최일선에서 챙긴다는 점에서 국고 예산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리로 꼽히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더민주 현역인 우상호 의원은 “원내 고위 관계자로부터 ‘광주·전남지역 의원을 예산조정소위에 배정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원내 지도부에서 보다 현명하게 접근해야 한

다”고 말했다. 더민주 소속 광주·전남 기초단체장들도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광주·전남지역의 예산조정소위 위원 배제가 현실화된다면 당장 내년 국고 예산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 모 기초단체장은 “이미 더민주 소속 전남 기초단체장들과 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예산조정소위에 지역 의원을 포함시켜달라는 건의서를 원내 지도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그래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 기자회견을 갖는 등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초단체장도 “새누리당은 전남에 유일한 현역인 이정현 의원을 수년 동안이나 예산조정소위 위원으로 배정하

바 있다”며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예산조정소위에서 배제한다면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측에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동민 원내 대변인은 “아직 예산조정소위 위원을 확정하지도 않았으며 광주·전남 배제설은 금시초문”이라며 “우상호 원내대표도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 예산조정소위 위원 결정은 이른 단계지만 호남의 특수성을 감안, 원내 지도부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밝혀야 한다”며 “호남 현역 국회의원이 3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더민주 지도부는 더 많은 관심과 배려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밀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김성식 정책위의장(왼쪽),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누리-더민주 추석 앞 ‘안보 경쟁’

### 이정현 파주서 1박2일 병영체험·추미애 애기봉 관측소 방문

새누리당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6일 오후 나란히 군부대를 방문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상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장병 격려 차원이지만 안보 행보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경기 파주의 한 포병부대에서 이날부터 1박2일 동안 병영 체험을 한다. 여기에는 국회 국방위 김영우 위원장과 경대수 간사 등도 동행했다. 이 대표는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물론 점호도 받고, 야간 경계 근무에 시켜 훈련까지 참여했다. 또 7일 오전에도 구보로 시작, 병영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잠

깐 부대를 방문해 사진 찍는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 만이라도 장병의 생활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정책도 입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후 서부전선 최전방인 경기도 김포시의 애기봉 관측소(OP)를 찾았다. 취임 후 군부대에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민생과 안보를 강조한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추 대표는 이날 애기봉 OP에 도착해 먼저 해병 2사단으로부터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장병과 만찬을 함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더민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발의

### 지원서에 학교 기재란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입시와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학교와 직장이 출신학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지원서에 ‘출신학교 기재란’을 없애는 것이다.

더민주 오영환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더민주 사교육대책 태스크포스(TF) 팀이 준비했으며 간사인 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서는 채용 응시서류와 입학전형 자료에 학력 기재 등을 요구하거나 출신학교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

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이유로 고용, 국가자격 부여, 교육기회 등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한다.

학력 등의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학력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오 의원은 “사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학벌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해결하기 어렵다”며 “청년들이 ‘헬조선’을 의지하지 않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종인 더민주 전 대표 오늘 순천 방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대표가 퇴임 후 처음으로 호남을 방문한다.

김 전 대표는 7일 순천에서 경제민주화 방안을 놓고 조종훈 순천시장(더민주 순천지역위원장)과 토크쇼 형식의 특별강연을 한다.

더민주 순천지역위원회는 전남도당과 공동으로 이날 오후 2시 순천대 70주



년 기념관에서 당직자와 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당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김 전 대표는 조 시장의 사회로 ‘자유경제론’에 대한 토크쇼에 나선다. /최권일기자 cki@

## 박원순 “어지러운 나라 정권교체가 답”

### 美 순방 중 뉴욕서 간담회...대선 출마여부는 함구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 대선이 정말 중요하다”며 “어지럽고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답”이라고 말했다.

북미를 순방 중인 박 시장은 5일 오후 5시(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교민·유학생 간담회에서 내년 대선 출마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 “시대를 교체하고, 미래를 교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한 개인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권교체가 답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말이 이어지자 “왜 고민이 없겠느냐”면서도 “더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신문 1면에 톱



로 나올 수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박 시장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와 각을 세우며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 간 긴장으로 인한 손해는 우리가 안게 된다”면서 “안보뿐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도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어떤 강대국도 힘을 합치지 못하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며 “사드 배치가 적절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연합뉴스

## 천정배 “호남 주도 정권창출 가능”

### “잠룡들 국가·호남 비전 없어”...오늘부터 전남 동부권 순회

내년 대선에서 호남 주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진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가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천 전 대표는 6일 광주일보 기자와 만나 “이미 호남 민심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바람을 만들어 내면서 더 이상 정치적 틀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며 이렇게 밝혔다.

천 전 대표는 “특히, 호남 민심의 확고한 지지 없이는 야권의 집권도 어렵다”며 “결국 호남 민심의 향배는 야권의 대선 구도를 뒤흔들 수 있어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호남 민심은 차기 대선에서 호남 정신의 가치와 호남의 미래를 총괄시킬 수 있는 실용주의적 선택을 할 것”이라며 “이러한 호남 민심은 강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사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학벌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해결하기 어렵다”며 “청년들이 ‘헬조선’을 의지하지 않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잠룡들의 잇단 대선 도전 선언과 광주 방문에 대해 천 전 대표는 “국가적 비전과 호남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남



민심의 지지를 호소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선 도전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나의 도전보다는 호남의 미래를 위해 호남 중진들과 함께 논의하고 행동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제3지대론’과 관련, 당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모든 주장이 일장일단이 있다. 개혁적, 성찰적 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전북, 전남 서부권을 찾았던 천 전 대표는 7~10일에는 순천, 고흥, 곡성, 보성, 광양 등 전남 동부권을 순회한다. 천 전 대표는 호남 투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인권 문제, 친환경 농업, 다문화 가정, 노인 복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주력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